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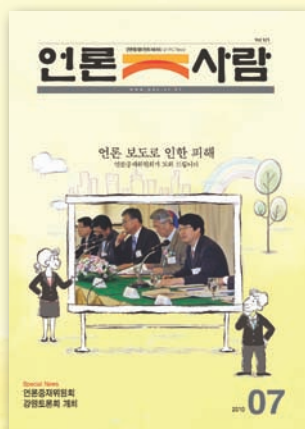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강원토론회 개최

2010

07

C O N T E N T S

2010. July. Vol 121



- | | |
|----------------|--|
| 03 이달의 주요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강원토론회 개최 |
| 04 인터뷰 | “법관은 생활이 단순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
| 06 위원단상 | 왜 사랑은 TV 속에만 있을까? (김진희 위원) |
| 07 직원마당 |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기획팀 김성찬) |
| 08 인턴쉽 프로그램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쉽 프로그램 |
|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 토이 스토리와 픽사 |
| 10 이런얘기 저런얘기 | 다문화 대표팀 전성시대 |
| 11 기고 | 보도할까, 말까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 |
| 12 위원회 소식 | |
| 13 사건 처리현황 | |
| 14 위원동정 |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기본법’ 제정 첫 공론화 언론중재위원회 강원토론회 개최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지역 토론회가 6월 25일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지역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9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홍래 강원중재부장(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분쟁해결 제도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중재부장은 “현대에는 일도양단식의 분쟁해결보다는 조리와 실정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방식의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 양상에는 조정 등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중재부장은 또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기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쟁 발생 시 그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내용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법 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정 중심으로 규정하되, 조정 기관의 독립성 확보, 조정의 개시 요건, 조정의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제언이 있어 왔으나, 기본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법원에서 조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기조정제도’를 도입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향후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라고도 하며, 법원의 재판 이외에 조정, 화해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법을 말한다.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법관은 생활이 단순하고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 역임
- 대구지방법원장(현)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현)
-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장 (2000. 9.~2001. 2.)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대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 내 신망이 높은 법조인이다. 각종 봉사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김 법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초임시절부터 거의 대부분을 대구 경북지역에서 법관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고향이 대구인데다가 첫 근무도 경북지역에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법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많은 선배 법조인들이 배출된 곳이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법조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출신들이 많다 보니 개방화 내지 국제화에 뒤지고 정보교환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차 다른 지역 내지 외국과의 법률문화에 관한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의 소신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노하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관은 생활이 깨끗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한 경험이 재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현대는 전문화 시대이니만큼 전문 지식의 배양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업무에는 선언적 기능과 만족적 기능이 있습니다. 법률 판단 문제가 우선이라면 선고를 통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고, 사실관계 내지 금액의 다과를 통한 조정과 중재가 요청된다면 쌍방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상호 양보를 유도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2009년부터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대구의 법원 건물은 1973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무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찾는 재판 당사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이죠. 새로운 청사부지가 마련되어 이전할 때까지 민원인들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적 시설의 보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민원 마인드개선 및 친절도 향상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법정 언행 개선 등 사법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진행하는 재판을 녹화해 두었다가 같이 보면서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조정사건도 많이 접수되고 해서 꽤 오랫동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알고 보니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웃음). 상당히 특별하고 보람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른 변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언론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에 언론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없지 않죠. 그런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자유가 책임의식을 동반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비해 선거제도가 많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후보자들끼리 서로 비방, 흑색선전을 하거나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후보자들끼리의 정책대결보다는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가는 면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도 자신의 소신과 역량을 발휘하여 당선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부모형제, 친구, 직장동료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건이 되면 그러한 도움의 결과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매달 ‘요셉의 집’과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외에 해마다 보육원생 법원초청 및 보육원 방문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봄에는 법관 및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장기 및 각막 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제 아내도 매주 시립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봉사를 수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즘엔 취미삼아 틈틈이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진 / 여운규 차장(홍보팀)



▲ 급식 봉사활동 중인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왜 사랑은 TV 속에만 있을까?



김진희 위원
(경남중재부,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심리학에서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낭만적 사랑은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심리적 체험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낭만적 사랑을 비정상적인 신경증적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문화 속에서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켜 사회적으로 학습된 사랑에 대한 환상과 상상이 사랑의 감정을 생성시킨다고 보고 있다. 세 가지 관점이 전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아니고, 각 관점에서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특정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첫 눈에 반한 사랑을 경험하거나 20대의 자유롭고 순수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반대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집요하게 따지는 애인을 사귀 적이거나 일이나 개인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랑을 해 본 적이 있다면 사랑이 신경증적 상태라는 점에 긍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TV 속에서 그려지는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나도 한번쯤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낭만적 사랑에 사회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TV 속 사랑을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중 하나는 ‘왜 남자 주인공은 잘 생기고,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싸움도 잘 하면서 여자에게 자상하기까지 한가’이다. 현실에서의 남자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것에 소홀한 일 중독자이고, 악기를 다루는 남자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조차 없고, 싸움을 잘 하는 남자는 능력이 없는 건달인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또 여자 주인공은 씩씩하고 착한 신데렐라가 아니면 표독스러운 악녀로 그려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성격 무난하고 손해 보는 것도 싫지만 남한테 모진 짓도 안하는 평범한 여자는 없다.

다른 의문점은 우리는 헤어진 첫 사랑과 우연히 재회하고 싶어도 절대 만난 적이 없는데 TV 속에는 그런 우연이 왜 그리 쉽게 자주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다. 또 교환이론에 근거하면 보상과 비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계층을 뛰어넘는 결혼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결혼해도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데 TV 속에서는 그런 사랑이 더 많다. 이 밖에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더 멋진 총각이 나타나 인생을 빛나게 해 주고 있으니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상상하게 만든다.

TV 속 사랑 이야기들이 이렇게 현실과 다르다면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사회화시켜주는 TV라는 매체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애인이나 배우자와 TV속의 멋진 남녀를 비교하게 만들어 우리를 좌절시키고, 기념일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 이야기는 못해 주는 남자를 무능하게 만들고, 못 받는 여자를 초라하게 만든다. TV는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는 신화에 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TV 속 부모는 늘 침착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차나 과일까지 쟁반에 받쳐 방으로 날라라 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현실 속의 부모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와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실 속의 남편들은 부인을 위해 음식 쓰레기 버리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도 해야 하지만 TV 속 남편들은 더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부인이 주는 아침 먹고 출근하기 힘든 세상이라는데 TV 속 식탁은 아침부터 반찬도 많고, 국도 있다.

TV 속 세상은 만들기 어려운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 지친 우리를 꿈꾸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잘못된 신화는 우리의 사랑과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사랑과 가족을 꿈꾸게 하는 대중매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낭만적 사랑과 완벽한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현재의 생활이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인식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묻는 질문이 있다. 무인도에 세 가지만 가져가야 한다면 무얼 가져가겠느냐는 질문도 그 중 하나다. 친구 사이에도 묻고 면접 과정에서도 묻고 심지어 TV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이다. 그러나 쉽게 답할 일은 아니다. 아무리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무인도에 단 세 가지의 물건만 가져가야 한다면 주저하게 된다. 왜 하필 세 가지인가. 죽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단 몇 가지만 들고 무인도에 들어갈 일은 없다. 애초에 무인도에 가려고도 하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답변을 강요한다.

이 같은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묻고, TV 쇼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선택된 못생긴 사람들 중 한명과 꼭 결혼해야 한다면 누구와 하겠냐고 묻는 식이다. 이런 물음들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를 상정한다. 그리고 물려설 수 없는 선택을 강조해 상대방을 잠시나마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다. 상대방이 재치 있는 답변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의기소침해진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참 고약한 질문인 게다.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극단적 상황에서 제한된 수의 경우만을 골라야 하는 것도 흑백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흑백논리는 선택을 강요하고 다른 답은 거부토록 해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이것이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번지면 집단 내에 대립과 분열을 낳는다.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서로를 힐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대립은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도적 색채의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매도한다.

사실 극단적 상황과 흑백논리로 점철된 질문들은 파시즘적 박해에 관한 얘기들이다. 만약 나치가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독일군 중 어느 편에 서겠냐고 묻는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독일군이 가만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에게 무인도에 버려지는 극단적인 상황과 엄마 아니면 아빠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나치와 같은 심리상태이다. 모 아니면 도, 아군 아니면 적.

주지하듯 흑백 사이에는 회색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극단적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무인도에 가더라도 여러 유용한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 모두 좋다고 말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질문이 강요하는 상황을 굳이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질문을 보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야 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을 박해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에서 평범한 독일인들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상황과 흑백논리를 포함한 질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안의 파시즘이다.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인도에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자. “너나 가라. 무인도!”



김 성 찬
(기획팀)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쉽 프로그램

조남태 팀장(교육팀)



▲ 인턴쉽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권 성 위원장

지난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는 학부모 두 분과 함께 학생 손님 20명이 찾아왔다. 중재위원회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마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쉽'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경기도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와 서현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중재위원회는 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다.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정 인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프로그램은 앞으로 중재위 인턴쉽 과정이 언론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인기 프로그램이 되리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평소 기자나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로서, 방학식을 마치자마자 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참가 학생들은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역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해,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중재위원회 교육팀 김윤정 차장이 진행한 이날 강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와 동영상 자료로 구성된 PPT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언론 보도와 관련되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내며 열의를 보였다.

교육이 끝난 후 참가 학생들은 "언론자유와 소중함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에 대해 새로이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사례와 영상자료가 재미있게 구성되어 이해가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심리실, 상담실, 심의팀을 견학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으로부터 인턴쉽 프로그램 이수증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권 성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정직이 개인의 발전, 사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이며, 언론에 있어서도 정직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언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정직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앞으로 중재위원회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교 또는 학생단체는 20명 내외의 인원을 구성하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97-3062~3



백승찬의 영화세상

토이 스토리와 픽사



요즘이야 스티브 잡스하면 모두들 아이폰을 떠올리지만, 그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한 일은 하나 더 있다. 바로 픽사 스튜디오의 인수와 경영이다.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픽사의 11번째 장편영화 <토이 스토리 3>가 8월 한국에서 선보인다. 1995년 1편, 1999년 2편에 이은 시리즈다.

픽사는 1974년 뉴욕 공과대학 내에 설립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소에 기원을 둔다. 이후 조지 루카스의 '루카스 필름'과 손을 잡았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잡스가 1986년 이 연구소를 인수해 픽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날의 토대를 다졌다. 픽사(Pixar)는 화소를 뜻하는 픽셀(Pixel)과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의 합성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되, 예술의 감수성을 잊지 않는 이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회사 이름이다.

픽사는 잡스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당장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애플에서 쫓겨난 이후 일거리가 없었던 잡스는 픽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매년 막대한 손실만을 기록했다. 심지어 잡스는 회사를 매각하려고 마음먹기까지 했다. 그러던 와중에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나왔다.

당시 <토이 스토리>의 성공을 점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토이 스토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장편 애니메이션이었다. 아직 <알라딘>, <라이언킹>과 같이 손으로 그린 셀 애니메이션이 대세인 시대였다. <토이 스토리>의 시사회 반응은 좋은 편이었지만, 실패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낼 정도는 아니었다.

결과는 완전한 성공이었다. 순제작비 3천만 달러의 <토이 스토리>는 미국에서 1억9천200만 달러, 해외에서 3억5천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실리콘밸리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픽사는

순식간에 백조가 됐다. 픽사는 <토이 스토리>의 개봉 일주일 뒤인 1995년 11월 29일로 기업공개 날짜를 잡아두었다. 픽사 주식의 80%를 갖고 있던 잡스는 순식간에 거부가 됐다.

<토이 스토리>는 인형과 장난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설정 아래 이야기를 푼다. 아이들이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상상이다. 이들은 인간이 보지 않을 때 움직이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카우보이 인형 우디와 우주 비행사 장난감 버즈가 주인공이다. 1편은 스토리를 진짜 우주 비행사로 착각하고 있던 버즈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2편은 '존재'의 문제를 다룬다. 차츰 늙아가는 장난감으로 남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 것인가, 수집상의 손에 의해 박물관에 보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장난감들을 통해 사뭇 어른스럽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3편 역시 수작이다. 주인 앤디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장난감들은 창고에 처박히거나 기부될 위기에 놓인다. 꾀를 부린 장난감들은 앤디의 집을 탈출해 거리를 떠돌다가 탁아소를 발견하는데, 아이가 크면 또 다른 아이가 들어오는 이곳은 장난감들에겐 낙원이었다. 그러나 탁아소를 장악하고 있던 터트대감 장난감들의 음침한 세계가 밝혀지면서 우디와 버즈 일행은 곤경에 처한다.

<토이 스토리 3>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소재로 어른도 동감할만한 이야기를 만든다. 사랑받는 기쁨, 헤어지는 슬픔을 <토이 스토리 3>처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는 근래에 보기 드물었다. 무생물에도 감정을 불어넣을 줄 아는 픽사 애니메이터들의 솜씨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역작이다. <토이 스토리> 시리즈는 올해 마지막 4편이 나온 <슈렉>과 함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다.

흥행 성적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픽사는 한 번도 실패작을 내놓지 않았다. 3편의 <토이 스토리> 시리즈 외에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업> 등이 픽사의 작품이다. <토이 스토리> 1, 2편의 감독이자 3편의 책임 프로듀서인 존 레세터는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주고, 예술은 기술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배타적으로 여겨졌던 예술과 기술의 화해를 시도하는 픽사의 장인들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걸맞은 인재일지도 모른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다문화 대표팀 전성시대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승에 오른 두 팀 모두 최초 우승에 도전했기에 그만큼 관심이 더 컸지만, 결국 승리의 여신은 스페인의 어깨에 내려앉아 어느 신통한 문어의 예언을 적중시켰다. 화젯거리도 많은 대회였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겐 최초의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회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월드컵이 세계의 축구팬은 물론 평소 축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축구는 그 보편성과 단순함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와 무척 쉽게 결합한다. 일찍이 일본인들을 혼내주며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던 우리 축구가 '붉은 악마'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팀 선수 구성을 보면 갈수록 '순혈주의'가 벌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식민지 출신 선수들을 대폭 기용하여 정상에 올랐던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몰락했지만, 폴란드, 터키, 튀니지, 가나 등 출신을 가리지 않고 외국

계로 엔트리의 절반을 채웠던 독일팀은 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4강에 올랐다. 비록 독일 극우파들로부터 '잡탕 대표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그들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 뛰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일찍부터 귀화 선수를 통해 전력 상승을 꾀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브라질 혼혈 선수가 큰 역할을 했다. 우승한 스페인 역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내전의 역사로 인해 사사건건 대립하던 카스티야와 카탈루냐 선수들을 한 데 묶어내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찬사를 받지 않았던가. 바야흐로 '다문화 대표팀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기량이 뛰어난 K리그 용병들을 귀화시키자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현된 적은 없다. 그러나 언제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농구 대표팀에서 보듯 혼혈계 선수가 생길 수도 있고, 최근 크게 늘어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자라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훗날 머리카락과 피부색이 조금씩 다른 선수들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국민의 성원을 받아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여운규 차장(홍보팀)



▲ 남아공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독일 대표팀. 엔트리 23명중 11명이 외국계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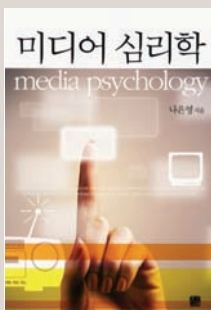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 미 숙 (정책연구팀)

미디어 심리학

나은영 지음 | 한나래 | 340페이지



우리 삶에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최근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현실사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은영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출간해 화제를 모은 「미디어 심리학」 역시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심리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의 미디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미디어 또는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 찾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한 미디어 장르 간 융합 현상과 인터넷, 소셜 미디어, 미디어 아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룬다.

보도할까, 말까



강준구 기자(국민일보 경제부)

언론계에서 가장 많은 ‘특종’ 혹은 ‘단독’ 기사 경쟁이 벌어지는 부서는 경찰팀이다. 기자가 많기도 할뿐더러 기자 초년병이 많아 ‘전투력’이 남다르다. 고급 취재원 관리보다는 발로 뛰는 범위에 따라 ‘단독’ 취재 여부가 갈리는 원초적인 취재현장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언론중재 신청을 가장 많이 당하는 팀이기도 하다. 필자는 과거 사회부 5년 동안 주로 경찰, 검찰 팀에 근무했다. 먼저 몇 가지 풀어놓을 얘기가 있다.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이다.

수습기자 시절 불치병을 앓던 소년을 알게 됐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를 남달리 돌봐준 사실을 기사화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때문에 기사가 걸렸고 그날 밤 많은 이메일이 쏟아졌다. 한의원, 병원, 독지가…. 학생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다음날 터졌다. 그 친구는 자기가 아프다고만 알았을 뿐, 불치병인 줄은 몰랐다. 그의 부모님은 내게 전화해 “무슨 의도로 기사를 썼냐”고 말하며 오열했다.

성폭행 후 살해당한 소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 속보를 써야만 했던 대형 사건이었다. 기자 수 십 명이 경찰서에 진을 쳤고, 몇몇은 피해 가족의 집 앞에서 대기했다. 가족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대서특필이 됐고 심지어는 거실에 커튼이 쳐져있는 것도 기사화됐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거실을 커튼으로 막고 슬픔에 잠겨있다’는 식으로.

후배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소녀의 어머니가 매일 쓴 일기를 발견했다. 소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였다. 절절하고 아팠다. 후배는 기사를 썼고, 그날 저녁 소녀의 친척에게 먹살을 잡혔다. 기사는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청에 불려만 왔다하면 갖가지 의혹과 연계돼 기사화됐다. 그 와중에 한 선배가 내 기사에 첨언을 하던 중 피의자의 업체명을 특정해버렸다. 그 업체 사장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하필 첨언했던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다른 언론사와 함께 본

보를 상대로도 1,000만원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답변 내용은 이렇다. “본보는 공익에 반하는 해당 의혹을 수년 전 가장 먼저 보도했으며…”, “당시 피의자가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검찰과 당사자에 여러 차례 확인을 거친 결과 사실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재판은 승소했다.

첫 사례는 의도와 상관없이 취재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다. 당시 아이의 부모님은 언론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학교 선배를 통해 내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학교 측의 중재와 학교 선배의 설명 덕분에 기사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었다.

두 번째 사건은 언론이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다. 공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경우다. 사안이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언론이 외면할 순 없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언론이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선까지 보도해야 하는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언론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신문의 낙종을 각오할지 여부는 한 기자 개인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책무에 가깝다. 재판에서 승소한 것도 보도의 공익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명예에 대한 논의는 남는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렴치한 범죄자’인 사람이라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게이트’가 터졌을 때마다 언론이 주변의 모든 의혹을 지면에 터뜨리고 사법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오늘도 많은 보도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이라고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뿐이다.

지방선거 선거기사심 의위원회 활동 종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일 설치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자로 151 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설치 기간 동안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사건 18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의결건수인 80건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양삼승 위원장은 “보다 나은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 형태와 판결 경향 등을 분석한 「200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송 제기 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처리결과와 법원판결의 비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상반기 위원 업무회의 개최



서울중재부 상반기 위원 업무회의가 6월 28일 열렸다. 서울 중재위원 19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올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각 지역 중재부에서도 계획에 맞춰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중 조사관 ‘언론인권 포럼’ 토론자 참석



언론중재위원회 김문중 변호사(서울제5중재부 조사관)는 지난 7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열린 ‘제 30차 언론인권포럼’(언론인권센터 주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인터넷 미디어에 확산하는 인권침해 차단장치’를 주제로 한 이 날 포럼에서 김 조사관은 언론중재 절차상 포털에게 과도한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기사제공 언론사와의 협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므로 포털에 과도한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털이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있다면 피해구제의 이행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향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포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므로, 포털의 피신청인 인정은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



제40기 사법연수원생 2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실무수습이 실시되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 주에 걸쳐 진행된 실무수습에 참가한 사법연수원생 양지열, 정상희씨(사진 왼쪽부터)는 언론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조정심리를 참관하며 조정 중재 실무를 익혔다. 한편 조선일보사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 21명도 지난 12일 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언론보도 피해구제 관련 교육을 받았다.

6월말 현재 조정신청 1,395건

사건 처리현황

JULY. 2010 VOL. 121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6월까지 모두 1,39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346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97건(동의 76건, 이의 17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70건, 기각 76건, 취하 806건(피해구제 657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2.5%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325건, 신문 278건, 방송 88건, 뉴스통신 22건, 잡지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6월까지 45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44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5건, 반론청구 17건, 추후청구 2건, 손해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6월까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134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93건, 피의자 신원공개 15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3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형사사건 피해자 신원공개·사생활 침해가 각 2건, 기타 법익침해가 17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74건, 일간지 43건, 뉴스통신 10건, 주간지 6건, 월간지 1건이다.

제6차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본드를 이용해 만든 위조지문으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질식사시키는 방법 등 범죄수법 상세묘사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소개하거나, 범죄 방법과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 범죄의 우려가 높은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 등 범죄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언론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2010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하여 7월 15일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기간행물 159개 매체를 자체 심의한 결과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으로 총 4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결정내용은 경고 3건, 주의 1건이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6월까지 1,287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26건, 타기관 안내가 114건, 재상담 예정 67건, 법적절차 안내 50건, 자체 종결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564건, 일간신문 474건, 인터넷신문 455건, 방송 259건, 주간신문 202건, 뉴스통신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6월까지 모두 61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27건, 언론사 15건, 대학 8건, 지자체 6건, 공사기업 1건, 기타 4건 등이다.

COMMITTEEMEN



미디어공공위원회
위원 위철환

SBS뉴스와 인터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변호사)은 6월 22일 SBS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7월부터 시작하는 무료 변론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지방 변호사회가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노동, 부동산 등 전문 변호사들이 변론을 담당한다.



미디어공공위원회
위원 이택수

‘집중진단 강원’ 토론회 참석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변호사)은 6월 29일 KBS 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집중진단 강원’ 토론회에 토론회자로 참석했다. ‘도정공백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 날 토론회에서 이 위원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공공위원회
위원 이한진

‘스마트TV 등장과 케이블업계의 대응 방안’ 포럼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진 가운데)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스마트TV 등장과 케이블업계의 대응 방안’ 포럼에서 사회를 맡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방송업 진화방향에 대한 진단과 스마트TV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디어공공위원회
위원 김창희

‘상생공영을 위한 통일교육 학술세미나’ 토론회 참석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6월 25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상생공영을 위한 통일교육 학술세미나’에 토론회자로 참석했다.



미디어공공위원회
위원 박재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실

박재현 중재부장(제주중재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은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이 주최한 ‘다문화가정 초청 한마음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제주시 다문화 가족들이 초청되었으며, 국적취득 관계를 내용으로 한 법률지식 교육 등이 진행됐다.